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朝夕刊)壹部 五錢 一個月先金 六十錢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社說

各地索戰의 報를 듯고

—多節運動의重要한것—

一

野球는米國人의國技요 蹴球는英國人의國技요 角力은日本人의國技이니 그것이그나라사람들의心身을鍛鍊하는利益이多大함이잇는것은 一般이다認定하는바어다 우리朝鮮에잇서서도 最近에新式運動競技의輸入됨이만히잇서盛行의狀況을呈하게되엿스나 朝鮮固有의 運動種類로서 最近에다시 盛行을呈하려고하는것이잇스니 擲柶와가튼것이 그一種이요 또그것이 朝鮮全般的은아닐지언정一部分에잇서서 重要한運動을成한것이잇스니 즉索戰이이것이다

二

索戰은 冬節運動으로하야매우重要한것이니 지금新式學校에서도 運動會時에는索戰의競技가업지아니하나 그것은從來의索戰에比하면 그規模가퍽적을뿐아니라 作戰計劃이라던지其他여러가지點으로보아서 遜色이만히잇는것을 認定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그러한데 얼마동안沉滯한狀態에잇던이運動競技가 近來에와서 또다시興作하게되는것은 매우깃분現象이라하겟다 冬節에는 더군다나 우리朝鮮에잇서는 溫突內에서生活하야 外氣와接觸하는機會가적고 따러서사람의活動을鈍하게하는바잇스니 適當한運動의必要를 더一層感하게되는터인데 索戰과가티 사람의勇氣를鼓舞하는 運動은 매우有益한것이라하겟다

三

北部朝鮮에잇서서는 氷上運動이또한有益한運動됨을不失할지나 南部朝鮮에잇서서는結氷의期間이極히短小하고 또結氷이堅固하지못하야 氷上運動을行하기가不能함으로 自然히다른運動의必要를生하게되엿다그리하야 索戰이라는것이 冬節運動으로하야 全羅慶尙等地에서 만히發達을보게된듯하다 日本人이 角力을볼때에 米國人이野球를볼때에 이러나는熱狂的態度는 우리는朝鮮의索戰에잇서서 그것을볼수잇다 그러나 索戰이 角力과野球보다도또는其他어느運動競技보다도特別한長處를가진것은 그勝負를다투는戰鬪에 直接參加하는사람의數爻가 極히多數에達하며또達할수잇는것이다 野球에잇서는 直接勝負를다투는사람은二十人以內이요 角力에잇서서는 二人의勝負에지나지못하나索戰에잇서서는 直接勝負에參加하는사람이적어도數百 만하면數千乃至數萬에達할수잇나니 群衆的運動의 가장模範的인者이라하지아니할수업다

四

戰爭을한다거나 示威運動을行하거나 또호랑이산양을할때에는 群衆的運動의出現을만히보다 또우리朝鮮에는 從來에便宿이라는것이잇서 群衆的運動을몹이만히잇섯섯다 그러나 이러한모든種類의群衆的運動은運動競技로볼수가업고 또便宿과가튼것은 어느點으로보아서는運動競技로도볼수잇스나그 結果多數한負傷者를낼것이쳐음부터明白한것은運動競技로하야普通提唱에 行할것은못된다그러나 索戰은이러한 缺點이업는同時에 群衆的訓練을어들機會를가지게하고 그에參加한사람들로하여금 自然的勇氣를내게하는것이 그에지날者업슴을 안다 이러한意味에잇서서 索戰의流行을다시보게된것은 반가운일이라고하겟다 索戰이出演되는것은 多節에明한때를擇하고 陰曆正月望後에이르러서 白晝에大決戰을行하야 年中事를마치는것이 常例이다

國際聯盟理事會 三月中제네바에서開催

(나우엔二十六日發) 倫敦에傳하는風說에依하면三月八日「케네바」에서開催할國際聯盟理事會에서決定할問題는
一、「살」地方占領委員의任命
一、同地占領軍의整理
一、同地方의一般投票의結果及獨逸의聯盟加入等의問題이라고傳하더라

獨逸以外의國이 理事國參加에 日本의反對通告說

(나우엔二十六日發) 歐洲諸國의首都에서는日本政府가獨逸을除한他國이國際聯盟理事國으로새로히參加하는事에反對의旨를英佛、白諸國政府에正式으로通告하엿다는說이잇스나其眞否는疑問이라더라

全英勞組大會 共産黨排除를決議

(나우엔二十六日發) 「구라스코」에서開催된英國勞働組合全國大會는二萬對六萬으로勞働組合으로부터共産黨을排除키로決議하엿더라

大戰紀念盃를 —全部競賣

(나우엔二十六日發) 佛蘭西의「아미안」市街는大戰의終結에際하야佛蘭西政府가同市에授與한大戰記念盃全部를競賣에附할事를決定하엿다더라

西國鬪牛禁止 國技廢止의前提인듯

(나우엔二十六日放送) 西班牙警察은今後鬪牛하는事를禁하엿다는데此는西班牙의國技라고도할만한鬪牛廢止의前提이라고觀測되더라

二十日間에 世界一週를計劃 米國一記者의快擧

(모스크바二十六日發) 米國의一新聞記者「린런、웰스」氏는來六月을期하야二十日間으로써世界一週旅行을試할計劃으로 勞農政府로부터露國橫斷의許可를得키爲하야今回當地에到着하엿는데氏의計劃에依하면氏는來六月에「뉴욕」을出發하야飛行機로一氣에 英領「코롱비아」州의「빅토리아」로飛行하야同地에서汽船으로日本橫濱에直行하고橫濱에서浦鹽斯德으로向하야同地에서更히飛行機로「모스코-」及伯林을經하야「셀불」에到着하고 同地에서汽船으로「뉴욕」에歸航할豫定인데今日外지世界一週旅行의記錄은 一千九百十一年에「뉴욕선」紙의記者「존、샤-」氏의行한三十五日十時間四十二分인데「린런」氏의計劃이豫定과가티進行되면更히新記錄이出來할터이라는바尙히「린런」氏는自己의旅行記를歐米及亞細亞百餘種의新聞에揭載할터이라더라

國民軍乘勢? 李景林의放念을乘하야 大擧逆襲을計劃

(天津電) 天津南方의危急으로國民第一軍은北京에서同方面에輸送을開始하야旣히一萬四千은天津을通過하엿는데集中을終了하는대로逆襲에出할모양인바一方李景林은放心함이過한嫌이잇슴으로國軍에게六分의强味가잇다고觀測되더라

京大事件을 衆議院에質問

(東京電) 京都帝國大學學生檢擧事件에關하야同大學出身의山崎達之輔、濱田一郎、山口義一의諸氏로부터二十七日質問趣意書를衆議院에提出하엿다더라

關稅案對策은 本黨態度觀望

(東京電) 憲政會關稅委員은二十七日態度決定에就하야協議한結果大體政府原案支持에努力하기로하엿스며本黨과協調上修正을要할小麥、米等中어느것을讓渡할가에對하야更히本黨의態度를見하야決定하기로되엿더라

憲政會兩氏辭任

(東京電) 二十七日憲政會議員總會에서濱口院內總務와戶田幹事의辭任와正式으로若槻總裁의承認을得한旨를發表하엿더라

東北軍航空隊 錦州에出動

(某所着電) 東北陸軍航空處는本月初부터錦州에向하야出動을開始하엿던바在錦州同處航空隊長張學良의命令에依하야飛行機六機隊員十五名職工其他要員三十名과共히...錦州에向하야出動하엿더라

船舶職員試驗

三月十日부터鎭南浦及...兩海事出張所에서臨時船舶職員試驗을執行할터이라더라

平壤西門通郵便所

平安南道平壤府에잇는「平壤西門通郵便所」를...二十七日付總督府告示가發布되다

平電에讓渡되는 沙里院電氣問題 當局者의意見交換과 記者團의市民大會召集

京義線沙里院面當局은平壤電氣會社에引繼한다함에對하야面當局과協議員會의意見과平電의態度를對照코저二月十八日張龍鎬、宇佐見、田北致治三氏를平壤에派遣하야社長을面會한後左記讓渡條件을提出하엿다는데平電에서는말하기를面當電氣事業을平電에讓渡하면載寧信川瑞興新幕黃州等地外지電力을送하야黃海地方이大發展될것이며또平壤과同一한料金을取扱할수잇고道當局과面當局도贊成한다하고可否를二月二十八日에通寄하겟다하엿다더라

◇讓渡條件

一、電氣事業經營에關한土地建物機械其他工作物一切를只今現在대로讓渡할그리고此施設에要한面債務金六萬五千圓은會社에서引受辦濟할事
(但契約成立前에利息은面負擔으로할)
二、貴會社는沙里院面에對하야 다시金五萬圓을寄附할것
三、事業讓受後는沙里院面內에限하야電燈料는左記標準에依하야低減케할事
十燭一個月九十錢以內(器具損料共)로할事

記者團會議

以上에對하야朝鮮人及日本人記者團은二月二十四日當地願寺에緊急會議를開하고平電에讓渡與否의關하야長時議論하엿스나圓滿한議論이업고左와如한決議를한後다시二十五日에集合키로하고散會하엿다더라

◇決議

一、市民大會開催의件
吾人은沙里院의經濟的彈力을期하야面民의普遍的利害關係를平等케할見地로現在에面營電氣業의充實을期할만한解決을希望한吾人의行動은어데外지던지面民의輿論과一致함

‖附帶‖

此實現運動으로面協議會員을鞭撻하야可成的道知事에게解決의全權을一任코저함

記者團繼續會

記者團에서는去二十五日當地小學校에會集하야繼續議論을한바市民大會는同二十八日午後一時普通學校에開催키로하엿다는바決議件은電氣問題、慈惠醫院問題、裁判所問題、鐵道問題等이며同日에는圓滿한解決을어드리라고一般은期待한다더라(沙里院)

松坡公普校 春季大學藝會 婦女들도屈指期待

廣州郡 松坡公普校에서는學藝發表會及 父母姊妹會를 來三月一、二兩日間開催하리라는바教育의必要를覺醒식힘만한學生들의喜劇과風琴及하모니카獨奏 誠은合奏等이잇슬터이라는바學生들은熱心으로練習中이요當校職員諸氏는準備에紛忙中인데當地에는昨年度公普校가設立되야서

秋收後突然取消 三十餘人小作權을 郡警面當局에陳情無効 擲賣家産코離散者不少

安岳郡大遠面上山里에잇는京城閔某의土地小作人三十八人과舍音吳啓榮氏間에小作爭議事件이突發하야尙今解決을엇지못하고問題는漸漸複雜하게된다는데그眞相은舍音吳啓榮氏가昨年에새로舍音이되야秋收를마친後不意小作人三十餘人의小作權을取消한다는通知를發付한바그理由는
一、京城에잇는地主閔某가小作權을取消하라는通知가有하며
二、小作上便利를爲하야外洞小作人의小作權을取消하야本洞小作人에게줄必要가有하며
三、感情上으로舍音에게惡意를가지고不當한投書를地主에게보내는일이잇슴
이라하나小作人들은自己네의小作權이取消되는때에는生活을維持할수업슨즉決코小作權을내여노흘수업다하야모커個人으로舍音에게賂物도하고懇請도하얏스나吳氏가終是不聽함으로小作人은團結하야郡警當局과面에陳情을하엿스며代表者를京城地主에게外지派送하얏스나圓滿한解決을엇지못하고兩便主張이强硬하다는데小作人側에서는家産을放賣하야지향업시流離케된者도잇다하며舍音側主論은舍音을運動하던者의惡宣傳으로地主에게投書하는等感情을生하는事가잇서地主의意思를從하야行한일인데此後라도惡感者의宣傳만업스면잘解結될줄도밋는다한다더라(安岳)

女學에寄金

吉祥農友組合에서는二月二十二日同面溫水里金業同家에擲柶會를開催하얏다는데會費餘金을同面溫水里無産婦女夜學會에寄附하기로하얏다더라(江華)

兵營少男女討論

全南康津郡兵營에서는二月二十四日基督敎靑年會主催로兵營少年少女討論會를當地禮拜堂內에서李某性金在...氏의審判下에

廣英里委員會

全南光陽郡玉谷面廣英里에서는里會委員會를二月二十三日同會館內에서...開하고里有海坡에對하야는專務委員鄭永和孫永權氏를選擧하야處理케하고區長選允鎬氏에게對하야同區長質問委員二人을選擧하야同時面當局에外지質問하기로하고里有林杉伐賣代金徵收에關하야는徵收委員五人을選擧하야一週日內로徵收하기로하엿다더라(光陽)

佛少六週紀念

蔚山佛敎少年少女團에서는去二十四日佛敎布敎堂에서創立第六週年紀念式을擧行한바布敎師梁大應氏의講演이잇슨後餘興으로滋味잇는歌劇도잇섯다더라(蔚山)

同友會委員會

慶北醴泉同友會에서는去二十三日邑內路下洞權世明家에서第一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定하얏다더라

◇委員

補選委員 黃昌燮 張東漢 張東億 常務 張東漢 黃柄夏 朴永基

◇決議

一、月例會를每月陰十五日로定함
一、共益組合에關한調査의件
一、普通學校에關한調査의件
一、警察當局에關한調査의件
(但今後當局의態度如何에依하야決定하기로함)
以上調査는常務委員에게一任함 (醴泉)

吉祥農組定總

江華郡吉祥面에잇는吉祥農友組合에서는二月二十一日吉祥公立普通學校內에서定期總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事業實行報告 一、決算報告 一、任員改選 一、小作爭議決의件 一、組合員募集의件 一、肥料供給의件 一、講習會開催의件

◇改選任員

執行委員 李仲均 李鳳順 張鳳鎭 吳年浩 劉秉龜 崔永駿 柳濬 常務委員 姜泰石 柳天福 趙久用 趙喜安(江華)

長湖院靑年會 大加革新 廿五日總會에

長湖院靑年會에서는去二十五日同會館內에서定期總會를開하고愼重히協議한結果從來會長制이든것을委員制로變更하는同時役員도全部改選하엿스며따라서內容도一新히하엿다는바改選된役員과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新任役員
委員長 趙成玟 委員 趙在新 丁忠燮 安丙玉 李圭泰

◇決議

一、今般會制의變更함을따라會則도改正하게될것임으로그改正委員은新任役員에게一任할것
二、이미除名된會員에게도除名된달外자에月捐金을收納할것
三、三月四日다시臨時總會를開하고改正會則을通過할것
四、其他의件 (長湖院)

星州青年素人劇

慶北星州青年會에서는素人劇을

文波會新組織 二十五日開城에서

開城에居住하는文藝에뜻을둔靑年幾人의發起로文學靑年親睦機關의文波會라는團體를去二十五日에創立하얏다는데同會는每月二回同人들의作品을交換輪讀하며同人間互相親睦을圖하거는것이本領이라는데委員은如左하다더라

◇委員

金東隱 權貞允 金載奐 金俊培(開城)

卒業生諸君에게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學業을卒業하면 事業의첫길을나서게된다 나는長久한時日과 不少한金錢을 消費하야錦衣還鄕의길에就하는諸君을爲하야 기뻐할뿐만아니라 文學에주린 우리二千三百萬生靈을爲하야祝賀하노라

◇바라노니 諸君은學生時代에 堅固하든마음을 秋毫도變치말고 웃외지一致하여라 過去의만흔事實에비추어보면學生時代에잇서서는 堅固한意志로써 압헤막힐것업시 千斤의鐵椎라도 能히주먹으로바술만한活潑한氣像과 剛直한態度로主義와理想에살기를 부르지지는者만엇다

◇그러나 그들은卒業證書一枚로써 堅固한意志는어디가사라지고 도리혀 그反面으로는 反動線上에괴발놀은者 그數를헤아리기不能한지라우리가그것을볼때에 얼마나한惡感을가젓스며 此로써社會에미치는影響이얼마나컷든가 우리는그들의過失을 徹底히썻다덧스니 우리는學生時代에 堅固한意志를그대로 뭉쳐쥐고一致하자

◇學業을마치고 일자리에드러가는諸君아! 우리의周圍環境을 깁히생각하야 同一한步調로 學生時代의마음을變치마자!

◇最後로付코저하는것은 우리는文學에주리며 時代變遷을헤아리지못하는中더욱農村을살펴보면참으로慘憺한狀態인것은 지금다시말할것도업다 諸君中農村으로도라가는이는職當그들을깨우치기爲하야모든힘을다하기를바란다 그리하야農村光明을널리여 주려드려가는그들의血液이旺盛하게하라 農村으로도려가는이의取할바는즉이것이인가한다 卒業生諸君이여 (金翊燦)

間島大講演 聽衆이七百餘

間島龍井市西鮮學友會에서二月十九日大講演會를間島公會堂에서開催하얏는데聽衆이七百餘名으로大盛況裡의終了하엿다하며演題及演士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演題及演士

新社會建設과靑年運動 張時雨
朝鮮人勞農者의生活 李泰俊
人生의價値는무엇 李懋州
民族과民族 金鳳益
非國民의反逆 金演秀 (間島)

反基督運動과 靴工罷業問題 元靑同盟에서討議

本月二十六日元山靑年同盟執行委員會에서는現下問題中의元山靴工組合同盟罷業及元山에서開催中인基督敎經會를機한反基督敎運動에對한決議를如左히하엿다더라

◇決議

一、今般問題가激烈하야가는元山靴工爭議에關하야元山靴工組合에는激勵文을보내는同時元山靴商組合에는反省의警告文을보내기로함
一、反基督敎運動에關한諸般方針의討議(元山)

撫順에螢雪會 去十七日創立

去十七日撫順에서는學生三十餘名이普通學校에會合하야智識도交換하며親睦과修養에勉勵할目的으로安相默君의司會下에螢雪會를組織하엿다는바決議事項과幹部는左와如하다더라

◇決議

一、會館은普通學校에置할일
一、每月一次會報發行할일
一、圖書를會館內에備置하고無記名으로投金할일
一、早起를實行할事

◇幹部

會長 安相默 總務部長 朱東錫 智育部長 李基成 體育部長 金善祚 音樂部長 金鳳國 (奉天)

松禾郵便 注意必要 蓬萊面의不平

黃海道松禾郵便所配達夫몃사람은書信이나新聞等을普通學校學生이나아는사람에게傳하야受信人에게는普通一週日이지나보게되고或은遺漏되는中더욱近日에는新入配達夫가다니며學生들에게傳하는일이甚하다고不平이甚하다는데郵便所當局者는此等弊端이업도록配達夫에게注意하기를바란다더라(松禾)

北青少聯 執行委員會

北靑少年聯合會에서는二月二十四日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常務委員高宗鉉李義鍾兩君이警察署에毆打를當한事件糾彈會에參加할것
一、各地方未參加團體에加盟勸告文을發送할것
一、各地에四隊로分하야巡回訪問할것
一、定期大會는三月二十一日에開催할것
一、執行委員六人을增選한全都 鍾韓鐸文鄭南時趙鍾禎金興在朴基錫(北靑)

曙光이비친 正則學校 諸般設備를 一層더擴張

平北良策私立正則學校는只今으로부터四年前大正十一年度에當時明治大學法科를卒業하고歸鄕한全賢之氏가創立한後氏가校長의職을帶하고熟誠을다한結果校運이益益隆旺하야北道에잇서서는唯一한中等敎育機關으로以來四五年間만흔人材를養成하야社會에貢獻이不少하던바本是基礎가튼튼치못하고資本이裕足치못한同校는到底히中學科를繼續할수업서十三年度末에此를廢止한後同校長全賢之氏가因病退職外지하매主人을일흔同校는校運이날로衰退하야存廢外지疑問이든바昨年度부터일즉이京城培材高普를卒業한張實健氏와氏의婦人安東縣高等女學校出身인金錦成女史의熱心敎授하며또高普出身인趙德學氏가無報酬로敎鞭을잡게되매새主人을마지한同校에는實로曙光이復照하야今春부터는學年을延長하는同時에諸般設備를一層擴張하며寄附金募集願도提出하야許可를得하는대로即時募捐에着手할터이라는데經運에싸진同校를爲하야뜻잇는地方人士의만흔同情을바란다더라(白馬)

義州初有 淸城鎭大索戰 參加人員이數千名

義州郡淸城鎭市內有志靑年諸氏의發起로二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繼續하야淸城鎭을中心으로하고全廣坪面의索戰大會를淸城鎭市內大路에서盛大히擧行한다는데經費도兩軍共히累百圓으로收合되엿고義捐도不少하다하며參加區域은東便에淸城洞一區와밋靑水舘汀、板幕의四洞이요西便에는淸城洞二區와밋下廣、上廣、富坪의西洞이라하며參加人員도無數千名일뿐더러觀覽者도만흐리라더라(義州)

阜境勞組可賛

慶北盈德郡南亭面阜境洞에서附近勞働者들이集合하야勞働組合을組織한지이미五個星霜에會員三十一人이熱心勞働하야勞賃의十分一을貯蓄하고地方勞働夜學과社會事業에物質로써만흔도움을주엇다는데主要幹部는아래와갓더라
設立者 黃善益 組合長 金源培 幹事 朴祥洞 金翰培 李在基 姜應祥(長沙)

遞信講演盛況

二月二十二日咸南甲山邑에서는靑年會主催로長平面事務所에서當地郵便局長岡田忠松氏가遞信事務中電信及電話에對하야約二時間餘의大講話가잇섯는데聽衆은無慮數百이더라(甲山)

새로發起된 蔚山記者團 創立大會는 三月七日에

去二十三日蔚山에서는朝鮮日報彥陽支局記者金洪宁氏到臨을期하야從來懸案中에잇든蔚山記者團發起에對하야東亞支局長代理姜徹氏等이會集討議한決果蔚山記者團發起會의形式을마치고來三月七日午後一時에創立大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各支分局記者에게發起文及入團手續等을發付하엿다하며從此로蔚山言論機關의權威가더욱伸張하리라하며同時에社會에對한貢獻도만흐리라더라

道師範入學熱 三十名募集에 三百餘名志願

忠北道立師範學校에서는本月二十七日淸州公立普通學校內에서入學試驗을行할터인데今年募集할學生은不過三十名인데入學志願者는三百二十五名이나된다더라

後進青年會 創立九週紀念 去二十七日에

二月二十七日平壤敎貞里禮拜堂內에서는後進靑年會創立第九週年紀念式을擧行하얏는데當夜에는講演과音樂도잇섯다더라(平壤)

復興을爲하야 麗水青年埋鬼

麗水靑年會는以來沈滯狀態에잇던바昨年夏間에비로소新興靑年의復興運動에依하야更히復興의曙光을이루게되엿스나不幸히靑年會館이債務로因하야當分間會員에게使用權이업슴으로會의事業과會員의活動上莫大한障害와困窮이잇슴으로一般會員은會館回收할基金과從來經營하던靑年會勞働夜學을復興식힐基金을募集키爲하야陰正月을應用하야『朝鮮古埋鬼』를興行하얏는데收入된金額이近三百圓에達하엿스며日氣의漸次溫暖함을따라復興靑年會의第一際로勞働夜學을開始한다더라(麗水)

鶴山農友定總

蔚山郡蔚山邑鶴山洞勞働靑年으로組織된鶴山農友會에서는去二十五日鶴山洞舍에서第三回定期總會를開하고經過報告任員改選新年度事業討議等이잇섯더라(蔚山)

廣英青年委員會

全南光陽郡玉谷面廣英青年會에서는二月二十三日同會館事務所內에서臨時常務委員會를開하고左記各項을討議하엿다더라(光陽)

◇決議

一、會務進行에關한件
一、會費徵收에關한件
一、郡青年聯盟加盟의件
一、本會中[illegible]에關한件

勞働夜學創立

全北金堤郡白鷗面美蓉驛附近은一大農村으로多數한勞働者가集合되여잇스나아즉外지그들을爲한敎養機關이업슴으로一般이遺憾으로여기든바當地親睦會와少年團에서協同하야夜學設立을期成하야基本金募集策으로陰正月初二三日間三百餘戶大村落을家家戶戶에收捐한結果現金四圓八十錢과白米十斗外未收된金額이三十圓에達한다는바爲先臨時로同風基督敎堂을借用하야三月一日부터

作人舊債宕減

宜川郡新府面承旨洞申鳳千氏는小作人金義鎭에게農債로年復年債給한것이現時二百餘圓에達한바債務者의長男金炳斗가現金四十圓을辦償함에對하야艱辛한小作人으로서此에至할도亦足하다하고其殘額을全部免除하얏다고(東林)

◇歲暮窮民周恤 金海郡大渚面沙德里金璞權氏는水害罹災窮民二十五戶에對하야陰歲末에正租六石과麥五石을分給하얏다고(大渚)

義州新春演藝大會

日時 三月二、三日午後八時
場所 義州公會堂
目的 푸로同志會支部經費補充
入場料 三十錢、十五錢
主催 義州푸로同志會
後援 時代、東亞、本社義州分支局

六千米의 馳氷競技 長津江上大活劇 觀衆無慮千百名 桂冠은또文興彥

長津新友會主催第二回長津氷上競技大會는去二十日長津郡新南面下碣市長津江競技場에서開催하엿는데觀衆은無慮千名以上이엿스며最後六千米決勝에至하여는第一回競技大會時에一着으로優勝의月桂冠을奪하얏던長津靑年會選手文興彥君이又復一着이엿고二着金鎬弼三着李時昆諸君이엿다더라(長津)

大山面長公判

全北南原郡大山面長梁海宗의學校寄付金橫領嫌疑事件에對하야二月十九日第一回公判이開廷된後該面民은大會의決議로當局에留任願外지提出하얏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二月二十五日第二回의公判이全州地方法院南原支廳에서開하엿다는데定刻前부터聚集한面民들은傍聽席에立錐의餘地가無할뿐아니라正私服巡査는場內外를嚴重警戒한中午前十一時半부터午後六時外지反覆訊問이잇슨後判事는證人訊問의必要를宣言한後閉廷하엿다는데延期日字는三月一日이라더라(南原)

數百農民稱怨 山林看守野漕으로

江原道平康郡南面芝岩里 山林『任山』은平康金化兩郡樵夫의自由이던바年前平康郡守劉洪鍾氏가日人三井에게許可한後三井은山林看守를任하야禁養이苛嚴한中樵夫에게多少同情이잇던看守申亨順이將任되고同里金某가看守된後로는禁護가苛甚하야附近數百戶農民의怨聲가不少하다더라(金化)

龍岩樂友臨總

寂寞한龍岩浦에도樂友會만은他處에遜色업시一般市民에게만흔有益과慰安을주어오던바不幸이엇던事情으로一時存廢의決點이잇던바몃몃幹部의努力으로二月二十三日臨時總會를開催하고缺員된任員을補選한後左記事項을決議하엿더라

◇決議

一、市民慰安을爲하야音樂演奏及素人劇을開催하기로
一、日時는二月二十六日午後八時場所는當地公普敎室 (龍岩浦)

◇寸鐵◇

【麗水】 三山面某除幕式祝宴에서는日人에는上席에淸酒上等料理朝鮮人에게는下席에濁酒국한그릇이엿다고! 除幕式이라지만고差別披露會라고하지?

【洪原】 景浦面觀德靑年會에獨立軍이와서金十五圓의寄附를바더갓다고洪原警察署에投書한者가잇다고한다靑年會를惜惡하는者의所爲이겟지

【南陽】 擲柶大會를開催한다고某某新聞에外지廣告하얏더니警察署에서[illegible]參加를禁止하얏다 [illegible]

社告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晋州支局 總務兼記者 金在泓 記者(駐在琴山) 李道榮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顧問을選定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三陟支局 顧問 朴衡鎭 顧問 金奎英 顧問 洪淳璣 顧問 鄭舜敎

今般本支局顧問黃顯相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얏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長連支局 顧問 金聖魯 外務員 黃燦禎

今般本支局으로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殷山支局 記者(駐新倉) 李台鎭 顧問(新倉) 金三封 顧問(新倉) 金秉奎 記者(駐慈山) 全允炳

今般本支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載寧支局 記者(駐新院) 鄭雷 記者(駐靑石頭) 張琴鉉

今般本支局에서屯浦面獎樹里에記者를駐在케하고一般事務를即接處理하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任實支局 記者(駐獎樹) 梁泰煥

本報二月二十五日附朝刊第一面社告欄中本支局總務兼記者朴炳玉은朴炳五의誤植이옵기에訂正함
朝鮮日報南原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Feb. 28th, 1926.

Mr. Arnold Bennett's Old-time "Steam Printer"

I

No living novelist has a keener eye for character, nor greater skill in portraying it, than Mr. Arnold Bennett. In "Clayhanger," for example, he gives masterly portraits of certain old-time "steam printers," and describes with unerring fidelity the primitive printing office in which they worked.

Darius Clayhanger is a fine portrait of a certain type of saturnine man, but he is by no means a typical printer. His foreman, Big James, is the kind of printer we have all met, usually in a smaller edition. He was "Big James" because "he stood six feet four and a half inches in height, and his girth was proportionate."

He had enormous hands and feet, large features, and a magnificent long dark-borwn beard; owing to this beard his necktie was never seen. But the most magnificent thing about him was his bass voice, acknowledged to be the finest bass in the town, and one of the finest even in Hanbridge, where, in his earlier prime, James had lived as a "news comp" on the "Staffordshire Signal." He was now a "jobbing comp" in Bursley, because Bursley was his native town, and because he preferred jobbing.... He was what his superiors called "a very superior man." Owing to the more careful enunciation required in singing, he had lost a great deal of the Five Towns accent, and one cannot be a compositor for a quarter of a centnry without insensibly acquiring an education and a store of knowledge far exceeding the ordinary.

Darius Clayhanger had been the first printer to introduce steam into Bursley, and his office had been built for some other purpose than printing. It was a three-storey building consisting of house and shop, the frontage qeing in Wedgwood Street. Over the double-windowed shop was a discreet signboard in gilt letters, "D. Clayhanger, Printer and Starioner," but above the first floor was a later and much larger sign, with the single word, "Steam-printing."...

拳銃가진三名 軍資金을强請

경찰당국은수색에로력

지난이십사일 오후열시경에 평북의주군 비현면광하동 조유선(平北義州郡枇峴面廣下洞 趙用善)씨의집에 권총을가진청년세명이들어와서 밥을지어달내서 먹고주인의셋재아들리숙(義淑)을더러 길을인도하라고 졸박하여 압세우고 그동리 조국신(趙國信)씨네 집에 들어가서군자금으로 이천원을 내라고함으로주인은현금이 이것밧게 업다고하면서 현금십원을 내어노흐즉그논은 일이업다고 도로 주고다시 동면 마신동 신주렬(同面 馬山洞 申周烈)씨의집에가서권총으로 숙(趙淑淑)을불리어보내고주인더러 역시 이천원을내라고하엿스나 주인의 말이우리는지난번에도 수백원을 내엿슴으로지금은 현금이 한푼도업다하매 그만아모말업시 어대로자최를감추엇다는데 이급보를 들은비현경찰관주재소에서는목하범인을엄탐중이나아직데포치못하엿다더라(비현)

싀집가기실코

工夫하고십허 放浪의女性

압헤닥처오는일마다소망과달러 신세가점점험악

함남북청군성해면수서리(咸南北靑郡星海面水西里)사는 강병남(康炳南)의 둘재딸 강금순(康錦順)(一八)은그디방조혼의폐해와 강제혼인의인습에 해독을입어 열다섯살되든해에 그부친이 어느산골에 사는이에게허혼한다는 말을들엇스나 사실인지아닌지는모르고 지나든중 작년가을에와서는 정말싀집을 보내고자하는바 어리고약한 금순의가슴은참으로불안하든차에녀자가

공부는 하야서무엇하느냐고하며 보통학교 삼년급에 다니는것을 다니지못하게 뚝떼여다가집안에몰아넛는그의오락비와 산골로싀집을 보내고자하는 그부친의생각에대하야 모다 自 뜻을품고 집을떠나 함북성진(咸北城津) 읍내로 이사가는이모(姨母) 김씨를딸하서 성진으로가서 그집에서 일을하야주고 밥을먹으며

엇던학교 에한두달통학을하든중 하로는 그이모김씨가 비단옷감을갓다주며이것으로네가옷을지여입으라고함으로금순은「어구어머니네도 업는논에이러케해서 되겟습니까?」하엿나 김씨는「얘-그러면입다고벗고살겟니! 어서지어내여입어라」하엿다그래서

그것으로 저고리와치마를해서 입엇든바 그리고수일이 못되야 금순아자는방에불것던장정이들어옴으로 이에 놀래인금순이는 에구어머니! 이게웬일입니싸하고 구원하야달라고 웨첫다 그러나김씨는 태연히안저서 애너는그래서 그대로굶어죽겟느냐고하며 네 입은옷갑은 어대서나오며 너먹은밥갑은 어데서나오다고하느냐하며

그날부터 우종하기를시작하얏섯다 금순이는 그김씨의유심을 꽤닷고음력 십이월십일밤에성진을 떠나서 단천(端川) 읍에와서엇던관주인에게 서던넘칭호를하고일도하여주고 장차양잠(養蠶)견습소에입학시켜주기로하엿다 그러나 불과몃날이되지못하야그주인과금순

사이에는 반목이생기엿다그래서 금순은온갓 업는허물을 와지쓰고 울면서그집을 나와서 음정월 초삼일부터 당디룡정리(龍井里) 렴창석(廉昌錫)씨의 집에와서잇는데 보는사람이 그 연고를 물으면 눈물괴인눈으로 자긔의신세를하소연한다더라(단천)

運手盟罷事件 雙方態度强硬

새로고용한운전수도 파업을동정하야사퇴

광주(光州)남신자동차부(南信自動車部)운전수(運轉手)일동이 주인의무리한 해고로인하야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운전수들은 최후의 결심으로 단결을더욱공고히하야 무리한조건에는 절대로 불응한다하며 주인측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각디에소개하야 운전수를 초빙하야다 가뎡긔(定期)차만 근근히 운전하든중에 라처로부터온 운전수들도가든 처디로서 파업이일어난 때에서 일하는것는 불가한줄도 깨닷고 다각기 돌아갓슴으로 이십삼일부터는 한차도 운전치못하엿다더라(광주)

金鳳植氏到壤

귀보

봉련도동아원의 경비곤난 함에 대하야 동원부리사박영환(事務理事朴永煥)씨가 이미평양에와서본보평양지국원(平壤支局)으로만흔 활동을하든바 지난이십오일오전 두시에 동리사김봉식(金鳳植)씨가평양에도착하엿는데 량씨의 대대뎍활동으로 일반사회의 동정이만타더라(평양)

公金을橫領한 安州裁判所員

공탁금천여원을횡령하고 취됴바든후검속을당하여

평양디방법원 안주지텽 검사국(平壤地方法院安州檢事局)에서는 안주재판소 서긔과(書記課)에 관계자 안의 엇던부정사건을 발견하고 수일전부터 극비밀리에 관계자를뎡야 취됴하던중 지난이십사일오전 검사는꼿구인장을 발하야 안주재판소 경매계(競賣係) 계원 김성렬(金聖烈)(三三)을 주규치장에 구금하얏다는바 이제그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 김성렬이가 재판소경매사무취급(競賣取扱)을하면서 어느집행사건의공탁금(供託金)일천삼백원을 지난이십삼일에 은행에서수취하야 본인에게 환부치아니하고횡령(橫領)한것이라하며사건은 기타관계자에게도 점점확대될모양이라더라

橫領金全部는 愛妓에게任置

박봉으로견대다못해 그런일을저질은모양

전긔와가티 공금을 횡령한재판소직원김성렬은 일천삼백원중에서 일천칠십원은 자긔의 사랑하는기생현도화(玄桃花)에게입처하고남아지돈은자긔가 소비하얏다는것이 취됴에 나타낫슴으로 현도화와 기생의 부모를 소환하야 맛첫든일천칠십원는차잣다는데김성렬은안주농업학교의 출신으로 원래순실하던사람이엇는바작년팔월부터 기생 현도화와서로 정분이나가지고 우금살림사리를 해오든터이라 검국박봉의 월급이화려한 생활을 당당치못하야 그와가티 공금을 횡령하는경우에 달한것이라더라(안주)

元山靴工强硬

십전식더주마하나 그것으로는못지안는다

원산화상조합(元山靴商組合)에서직공들에게갑작이임금(賃金)을 오십전혹은 이십전을나리겟다함으로 동직공조합에서는 단연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지나간이십오일에다시화상조합에서 직공조합에대하야 각각나린임금에 십전식을 더주겟다는 공문이잇섯스나 직공측 에서는 상금도 강경한태도로 대항중이라더라(원산)

不正한營林署

여러해동안계속하던 부정사건폭로

일본고지현 상좌군본천촌(高知縣上佐郡本川村)장진영림서(長津營林署)의 관림불하 (官林拂下)에대한부정사건이 잇다하야 동서원 삼명과 재목상(材木商) 사명은구인장(拘引狀)을집행유예도부터여 목하 고지디방재판소에서 취됴중인데 사건은뎜뎜확대되는 모양으로 그들은부정상인과 결탁하야 생목(生木)을 죽은나무라고 갑을 싸거가지고 그리익을 서원들이 논아먹은것이더는바 이부정행위는 과거에도십수년간을 끌어온것으로 피해액이 만흔모양이라더라(고지던보)

………… 봄을눈압헤두고 …………

◇— 작일창경원에서 —◇

敦靑月例會

오늘밤일곱시부터

시내수은동(授恩洞)일백이번디에잇는돈화청년회(敦化靑年會)에서는 금이십팔일 오후일곱시반에 동회관내에서 월례회를개최하겟슴으로 일반회원들은 참석하기를바란다고

奸巧卑陋한 詐欺輩

필경은발각되야 데포취됴하는중

함남단천디방(咸南端川地方)에는비루하고추악한사긔(詐欺)배가흔히도라다니며 어리석은 부녀자들에게서 금전을 만히편취하야먹다가 그단서가 발각되야 당디경찰서에 잡혀가서 취됴를 밧든중이라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데 강원도린제군 남면갑둔리(江原道麟蹄郡南面甲屯里)에원적을둔윤성옥(尹成玉)(二九)이란자는지나간해

팔월경에 단천에와서단천읍내룡성리리육재 (龍成里李六在)씨의집에주소를두고 각디를다니면서교묘하고비두하고추악하게도녀자들에게사긔를하여먹다가 지나간십이월이십사일에는 당디파도면봉양리(波道面鳳陽里)부근에서 남음을편동지환(鍮指環)을 길바닥에다가던져노코 외로운녀자가 지날때를 대하야앗흠

서가다가 그지환을집어가지고 반기는데하며 지나가는 부인 송파리안상렬(松坡里安尙烈)의안해김씨(金氏)(四一)를보고 이가락지를내가 지금어덧는데 공것임으로 싸게팔터이니사라고 권하는바 가락지에만욕심난 그부인은그것이 은(銀)인줄로알고 이것을요행으로 돈이원을변통하야주고삿는데

그자들은 그러한방법으로그럼불건을우매한촌사람에게 다수히 팔아먹다가 김씨부인의 것이단서가되야 결국 당디경찰서에잡혀가서 취됴를 당하고잇다하며 충청도(忠淸道)사람장덕진(張德鎭)(三)이란자도그일족에게넘겻다더라

惡魔의籠弄으로 飮毒한紅顔美人

자긔의행실을밝히고자 독약을먹고목을매엿다

홍안박명이라하는말은예로부터 일러나려오는말로서 인간이 고울고 그운명과일생을 오로지한 사람이 별로히적다는것을 흔히 증거하는말이다 그런데 듯기만 해도 비참한이사실이 송화 (松禾)한구석에서 나타낫다하는바 력으로지난초칠일히미한초승달이서쪽하날에고요히비치고잇는밤이엇다정초를당하야집집마다모든사람들은 새해의 새희망을바라보며 즐거웁게 뛰노는데 오즉

송화읍내 엇던조그마한 오막사리에서는 세상의 무정함을뎌주하며뜨거운눈물과긴한숨으로서 떠나는리별사를 쓰고 애처로히 저세상길을 향하야떠나라고 양잿물을마시고 허리되도 가는목을매인 미인이 잇섯다 그는송화군 송화면읍내리 최봉서(崔鳳瑞)씨의 셋재며느리되는손경록(孫敬祿)이라는 방년이십의 홍안미인인바그원인을 듯건대 손경록은이십년전에송화군련방면연교리손병두(孫秉斗)라는 농군의맛딸로

하빈한한 서 한해두해자라오는동안가세는극빈한중에 년사조차 해마다 풍등치못하야 닥처오는 생활난은 갈스록 극심하야손병두는 혈수업시 가산을해치고떠나지안흐면 아니될 운명에 처하게됨에 이제로부터 구년전 즉 경록이가열한살되든해 봄에 그만흔 아이들을 어지렁어지렁 다건사하기가 곤난함으로 생각섯데 열한살된 어린경록을송화군송내리최봉서씨의

둘재아들 최욱구(崔旭九)와약혼하고 최씨의집에 밋며느리로 내여주고 뎡처업시 떠낫다 사랑하는딸을 더욱히아까지 철모르는어린딸을 생소한 남에게로 예여주고 뎡처업시떠나가는 부모네의정경도 가긍하거니와 아죽나희어리고 아모철도모르는가운데 이에까지 부모의 떠뜻한사랑만밧다가 뜻밧게 낫도설고 성실도 모르는 남의부모에게로 떠나오게된 어린경록의 가슴이야얼마나

쓰라리며 압흐스랴? 이리하야 최씨의집에드러온 경록은뼈뼈로 고요한밤에 자긔의가련한 운명과뎡처업시 떠도라다니는부모동생들을생각하고 뜨거운 눈물과가슴이 터질듯한쓰라린한숨을 지우던이 한두번이 아니엇섯다 최씨의 집으로온경록은 나히는비록어리나 모든일에 어른에게지지안케 부드런히 일함으로 큰근사람들의 칭찬을 바드며 동시에시부모의 사랑도 밧게되엿다 그러나 그만불행한 파사명을 벗느니만체 어린동에 잠겨온일생을하노라니그슬품이야

어와가련 고통을저거가며 사라오든중 삼년전경록이가 열여덜살되든해 겨울에 그의남편 석구와 성례를지내엿섯는데 성례를 지낸뒤로는 부부간금슬도조와거니와 서부모공양을 극진히함으로 서부모의 사랑도 날로날로 두터워서 거위파거의 구술논살림을 이커바리고 단란한 자미를보게되엿다 그러나경록의 긔구한운명은 가도록 험악하야 그자미는 일장춘몽으로 운명의신은 그로하야금다시 악운을맛게 하엿다 원악어리엿슬때부터 쉬연덕으로 고용게생긴그얼골은보는

사람마다 흠모하여마지안튼중 나희가차츰 성장하야따라 더우더우 고운자태를내여 일업는 청년들중에는 그를위하야 애쓴는이가만헛다한다 그러나련청이얌전한경록은한청의희밀이업사지내왓는바 지난 음력삼월일어느날 그의부처에서사는 일남빈의처 장성은(張聖恩)과 한가지로 동리압내에 빨내를가는중에 장성은은 둘여허자긔남편의 그랴을허락하여 달라고하엿다 정조를 유일생명으로 알고지내오든 경록는뜻밧게 청련에벽력가흔 이말을듯고 어이가업서단단히 남욕햇스나

강성은은 엇지하든지정조를 빼여내일작뎡으로 자긔가 동원이나 조러이나 허락하라는 하고 누구에게다 그런말도 못하고 그만 혼자만알고 잇섯는대강성은그후부터는 그의석전사람들에게 대하야 경록이가 품을이엇던청년과 비밀히 맛나는것을보앗다는등 무수한 허위더비행을을 지어모함함으로그의시부모와 남편까지라도 의심을품게되엿슴 으로 경록은독바커오르는 분을참지못하야

여영이별전 애강성은의 남편되는 임송빈이가 새나서며 그어느날인가도 나를오라고 손길지지 안흘노나하고 더러러업는말을하고 어거스를당한 경록은너무도 긔가막혀 그만집으로 돌아와서 포자를분과 고민으로 지내든중 설음은지나 정조를당하야 강성은의무뎌한 더욱더욱자긔의집 부모에게 자조오고가며 여러가지로 모함함으로 서부모와남편의 태도는 천천더의심을 가지고 죽처럼으로 경록은

하소연할 곳조차업서 어나리나의 한목숨을 끈허나의결백함을밝히리라고 생각하고 정월초칠일밤에 양재물을 먹고허리되도 목을매여 죽으라하는것을집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응급치료를 하는중이나 회생할희망이 망연하다고한다 아!긔구한운명 을가지고악마에게번롱되는동시정조를위하야희생된경록의처는일생이여!(송화뎐과자)

沐浴中에 動風猝死

칠십노인이

전북익산군 익산면마동리 (全北益山郡 益山面 馬洞里) 박용규(朴溶圭)(四八)는이십오일오후열시경에리리말광뎡(裡里末廣町)에잇는 앵탕(櫻湯)이라는 목욕탕에서목욕을 하던중에 노충혈을이르켜 죽은것을 가티목욕하던사람이 발견하고 즉시리리서에계출하야동서에서는 공의를 다리고 검시하여든바과연노충혈로 졸사하것이 판명되여시데는 동련한시반에 그의가족에게넘겻다더라

日本廣島市의 『카페』女給總同盟

이천명녀자『뽀이』가모혀 희궁세인단데를만드럿다

일본광도(廣島)시내에는『카페』가구백커나되야녀자『뽀이』가이천명이 나된다는데 이번에 그들은간악한 소개옥(紹介屋)에 대항하며 한편으로는 실업자구제와고주(雇主)와의 쟁의에 대한 중재를하며 또는 자위덕 (自衞的)향상를목뎍으로 관서(關西)『레스추런드』녀급총동맹 (女給總同盟)을조직하엿는데 발회식(發會式)은 삼월중순경에 거행될모양으로서그들의배후에는상당한무엇이잇는모양임으로매우 긔세가당당하다 더라(광도던보)

平南에는 腸窒扶斯蔓延

대동서에서예방에노력

평남안주군안주면금성리 (平南安州郡安州面金城里) 등디에서는 작년십일월부터 삼십륙명의 장질부사환자(腸窒扶斯患者)가 발생하야 수일전에 한명이사망한바 평양위생과에서는 출장하야예방에로력중이며대동군재경면시족면(大同郡在京面柴足面) 등디에서도 지난상순부터 환자 오륙명이발생하야아직까지만연중임으로대동서는그에대한예방책에비상히로력한다더라(평양)

安城消組罷業

긔구불완전한리유로

경긔도 안성군읍내면 안성소방조원일동(京畿道 安城郡邑內面 安城消防組員一同)은 지난이십오일 오후두시경에 소방복(消防服)을 일제히버서 묵거노코 소조두석모던순 (小組頭石母田淳)외열일곱사람의 런명(連名)으로 당국에진정서 (陳情書)를 제출하고 임시에 동맹파업을 [illegible] 일금사월출조식(出初式)을

거행할때 에도월포에서 이아니나와서 당디강리서장(岡崎署長)으로부터 감상댕까지잇섯든것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전리강리서장과 리읍내면장(李邑內面長)으로서 전긔소방조원들이모혀잇는 동리복성루(東里福盛樓)라는중국료리집으로 달려가서 일반에게긔부금을 모집하야소방긔부를 일신하게 작만하겟다고 성명한결과 소방조원들도다소량해하는 모양 이라는데 그자리에서 성대한 만찬회까지 열엇섯다 더라(안성)

到處歡迎의 印度青年兩君

개성에서도열렬한환영

자던거한채에 몸을의지하고 세오나른은 이세계를 일주하고저 삼년이라는 긴세월동안에 수륙삼만리를 답파하고 인도로부터 조선까지 드러온 『바파솔란』 이십륙일 오후다섯시반경에 본보『쎄가라』량군은 예뎡과가티 이개성(開城) 지국의 리영규(李英圭)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 우상순(禹相淳) 조룡환(曹龍煥)황중혁(黃中爀) 고려의원창허용(許鎔)등 제씨가 장단림진강(臨津江) 연안까지 출영하야 가지고 멀리서오는 이진객을 보기위하야 가도연변에 장사렬을 지여느럿슨 수만흔군중과 개성분업회장 민천식(閔千植)씨가 인솔한 약 팔십명의 자던거대에 포위되여 열렬한환호중에 쌔여가지고 남대문안으로들어와 개성시에 안착하엿더라

宿食은崔氏家

환영하는의미로 최한영씨가자담

개성지뎡사는 최한영(崔漢永)씨는 이번에 인도두청년을환영하는뜻으로 숙식하는것을 마끔서 량군은 개성에도착하든즉시로 전긔최한영씨집에들어가 원로의 피곤한 다리를쉬이고 찬찬회향을하얏더라

講演會도盛況

의미기픈말로

자던거로세계를일주하는도중에 개성까지 들어온 량군의강연회는예뎡과가티 이십륙일 오후여덟시부터중앙회관(中央會館)강당에서 고려청년회 중앙회관및 본보개성지국등 세단데의 주최로개최되엿는데 허용씨의 사회로우뢰가튼 박수소리속에『바파솔란』군이등단하야김면우(金演佑)씨통역으로 자던거세계일주려행담이라는 연데로 고국을 떠나 조선까지드러온 경로를설명하야 몃번이나죽을고비를 넘긴일이며도처에서뜨거운환영을 바덧다는동감겨에넘치는어조로 무섭고 두려운 세계일주의 실험담을말하고 쇼트도 자긔가이러한모험사업을 하는리유를 설명하야 조선사람 중에도 자긔와가티 세계를 일주하는사람이 나가지고 한번인도를 차저와달라고하면서단에나리매뒤를이어서『쎄가라』군이 등단하야 조선사람의 열렬한 환영에감격하얏다는말과 조선에서 보고느진바 가지의감상을말한후 인도와 조선의두민족은진밀한관계를맷자는 간단한결론으로써 강연을마치고그들이가지고온세계각디명승과 고적을 환등영사한후 『쌔가란』군의유창한인도노래독창이잇서 장내에우숨이 가득한중 극히평온한가운데 강연회는 공던의성황으로무사히뭇을마치엇더라

廿七日은歡迎會

오전에는김동성씨집에 오후에는시민유지로서

량청년은 이십칠일에까지 개성에 데재하고이십팔일오전열시경에는서으로서으로개성을등지고평양방면을 향하야 길을떠날예뎡이라는데 개성에 데재하는동안에는 최한영(崔漢永)씨집에서 숙식을하고잇스며이십칠일에는 김동성 (金東成)씨의 초대연이 오전중에 잇섯고 오후다섯시부터는 개성 유지들의환영회가신풍관(新豐館)에서개최되엿는데 오전중에시내각처견학이잇섯다더라(개성)

有子有孫한 奸夫와姦婦

둘이손을잡고 어대로도망질

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경에 황주군례동리(海州郡禮洞里)압사과밧가온데에 잇는 두길이나넘는우물에나이 사십여세되여 보이는녀자가 우물가온데로 뛰여드는것을 마츰지나가든 사람들이보고즉시 달려가서 구호하엿건데 그녀자는황주군 황주면례동리 이백오십구번디리정섭(李正涉)(四二)의 처오씨(吳氏)(三二)라는 녀자로 우으로칠십이넘은 로모와 슬하의자녀와 손자까지 잇슴을 불구하고남편이 그동리 엇던녀자와 얼마전부터 비밀관계를맷고지내오든바그동리에서는자질이붓그러움이지지난이십이일에두남녀는집안사람의눈을 피하야 어대로 가서거처를알수 업습으로 전긔오씨는 남편의무도덕함을 원망함뿐아니라 칠십로모와 슬하의 자녀십여식구가 생활하여나갈 생각을 하고그와가티 자살하려! 함이라는데 가련한 녀자도사십여 세나된녀자로 슬하에는 역시아들과손자까지잇다는데려비도상당히 가지고간듯하다더라(황주)

娼妓自殺未遂

정랑과싸홈하고 독약을먹고야단

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 반음되야마산부원뎡(馬山府元町)대좌부엽오커뎡(晉樂亭)에창기로잇는리도화(李桃花)(二〇)가무엇을 비관하고자살하고자극약(劇藥) 구레-졸을마시고 피를토하며 신음함지음에 젓방에잇든 기생이그것을 발견하야 곳의사 (醫師)의시술을 바더생명에는관계업다는데 그원인은 전긔리도화는그의정랑 모와발다툼 한것으로그와가티 결심한것 이라더라(마산)

禮山에小作爭議

사음이디주의사돈이라고 소작권을함부로박탈한다

이미 본보에두차보도한 충남례산군삽교면룡동리 (忠南禮山郡揷橋面龍洞里)사음 정운식 (鄭雲植)이가 소작인대표 김재희(金在熙)외이인이 직접디주인고양군한지면한강리 림호상(高陽郡漢芝面漢江里 林昊相)씨를방문하고 그사실면말을 말한결과 권리팀디주는 말하되자긔는멀리 잇기때문에 그러한사실을 전면히몰랏다고 원만히

양해하야 주겟다하면서 일후에는 일층더주의하야 그와가튼폐단이 업게하겟다고 함으로그데표자들은곳도라와각작인에게 디주의말을권하고 원만히하야주기만 기다리고잇든중 이월상순경에 사음정운식이가 림디주에게 단여왓다함으로 소작인들은 디주의부탁으로 어떠한 깃븐소식을 들을줄알앗더니주야로

갈망하든 바는허사가되고도로혀사음이의 긔가양양하야 소작인대표도상경하야디주에게가서말한사람과디주에게다니는사람은자긔의행동을디주에게말하엿다고 소작권을 권부박탈하겟다 위협도하며 폭행도하는데 작년유십이월에 자긔의질부(姪婦)를어든바그질부는림디주의둘재딸이라고 하며 사돈간이되엿스니

아모놈들 이나의말을디주에게 가서하더래도 결단코내마음대로할것이요혹시디주가소작권을 도로주라하더래도 아니된다하며 횡포하기를 마지아니함으로 그곳주민들은 아모계책업시되야가는모양이며 림디주의유언무실(有言無實)의잘하야주마는말을 더욱분개하야 장래의대항방침을 강구중이라는데 례산군령(禮山郡廳)에서와본보

례산지국 (禮山支局)에서도당디에 출장하야 그사실을조사중이며 례산군령에서도 군수정직모(郡守鄭稷謨)씨가당디에출장하야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란다하며 소작권 박탈된소작인의씨명과두락수는대개다음과 갓다한다(례산)

一、印東植六斗落一、李化春五斗落一、金心夫十斗落一、朴學先五斗落一、印致江八斗落一、金聖烈九斗落一、印敬洛五斗落一、金在先十斗落一、金復烈二十五斗落一、印鉉貫七斗落一、印汝會三十七斗落一、金在希十六斗落一、金榮燮九斗落一、印官汝六斗落

新高山에凍死

함남안변군위익면금리 강관운 (咸南安邊郡衛益面琴里康觀云)(四三)은 정초에 신고산(新高山)딸의 집에와서 잇섯는데 이달이십삼일에 술을마시고 이웃에나갓다가 인가에서 조금떠러진곳에 뚝에서 오후여섯시경에 어려죽엇다고(신고산)

去時朝鮮人이 來時에는日女

조선옷을닙고 도망하든일녀

웅긔본뎡(雄基本町)에사는일본인권천공(前川貢)의 쳐수자(秀子)(二五)라는녀자는 지난십륙일 출항하는대남환(大南丸)에조선녀자로 변장한후 리시화 (李時化)라는 변명을 가지고원산(元山)으로 향하야가다가 청진(淸津)경찰의손에잡혀 일천웅긔에 도라오고말엇는데 그도망한리유는 자긔남편과 마음이맛지아니하야 밧서려번 도망하다가 붓잡혀온것인데 이번에는 그계교를 생각하고 교묘히여려사람의눈을 피하야 배에올낫다가그만청진에서 잡히고만것인바 갈때에는 조선녀자가 되엇다가올때에는 일본녀자가되여 왓다더라(웅긔)

美人窃盜 申福順의

데일회공판은 오는삼월일일

일뎡한주소가업시 여러해동안경도권문으로 그다지 군색치아니한생활을 하야오다가 종로경찰서에 데포되엇든 미인절도신복순(申福順)(二五)은그동안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공판에부처서 오는삼월일일 오전열시부터 경성디방법원 데일호법뎡에서구(具)재판장의심리와김(金)검사의 립회하에 개뎡할터이라더라

格浦江邊에 [illegible] 無主船

[illegible] (全北扶安郡格浦江)변에는 [illegible]

學生을亂打한

순사는고소를당할듯

의주군 광평면불뎡동 (義州郡廣坪面佛頂洞) 경찰관출장소순사백모(巡查白某)는지난십구일오후세시오십분경에 동면동동(同面同洞)에거주하며 청성공립 보통학교(淸城公普)에 통학하는 학생김리길(金利吉)(一七)과 김리원(金利元)(一五)을 몹시 구타하야 팔이상하고 또그밧게도여러학생을 무리란타 하얏슴으로 이소문을들은 청성학교의 교장은 그횡포무리한 순사를걸어고소를 데긔할모양 이라는데 이제그사실에대하야탐문한바에의하면 가리잇는일순사모의아들이출장소의문(門)을뚜다린것을 그동학하는 학생들이그리한것이라하야 그와가티 여러명학생들을란타한것이라는데이일에대하야 일반인민과 학부형들은 그순사의 횡포한것을 통분하는동시에교장의속히학생을위하야 고소하기를 바란다 더라(의주)

馬山府外에 染病猖獗

마산서에서는 예방에노력중

마산부외(馬山府外)의석뎐(石田)어판촌락(村落)에서 수일전부터 염병이발생하야 죽은아동만오륙명 되다하며 창원군내서면양덕리 (昌原郡內西面陽德里)에도 환자가삼십여명이나되야 인심이자못 흉흉하다는대 마산경찰서(馬山警察署)위생계에서는 상당한예방에 고력중이라더라(마산)

郵便非難頻頻

불평이비등하다

함남영흥군 진흥우편소(咸南永興郡鎭興郵便所)에서우편물(郵便物)배달함에 무성의하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가티 일반이공인하는바 지난오일에는 진평면영하리(鎭平面永河里)에잇는우편상자(郵便箱子)안에서조봉희(趙鳳熙)장경원(張景源)량씨에게가는 조선일보한묵금식과 뎡용묵(鄭容默)씨에게가는동아일보를 발견하엿고 지난륙일에는 호도면(虎島面)등디에서 모씨가 조선일보를 구람코저조선일보진흥분국에 신문발송 하여달라는 청구엽서가 진흥우편소까지는 내도한사실이 확실하되이하편계 저편계하며 아즉까지전하야 주지아니하는 사실이 관념되엿는바 이번에는이가튼일이얼마나 만히 잇섯슬것은 짐작할수잇는것이고 또는고녕면조산리(古寧面照山里)윤관혁(尹寬爀)씨에게가는신문과진평면룡천리(鎭平面龍川里)최병권(崔秉權)씨에게 가는 신문은 각십여일분식이나 전하여 주지아니하엿다고 하는바 이것은모우편소에서와가티원모부달 (日暮不達)이라던가 치워부달이라는리유로 여러날치를 한거번에 가저다 주는것도아니요 다업새여버린것도아니요

백원씨는 십여일을 경과하야도 배달부(配達夫)구장을 통하야도 답는 빈배가 배여잇슴으로이다고한다 진평면진수리(鎭平面鎭守里)황찬씨는 신문가지고간 배달부를 대하야 신문이 어가며 지켜되여엇던것은오고 엇던것은 오지부터 아니하느냐함에 배달부는 말하기를 진흥신문분국에서 사무를 임읍변경하여서 관보다 이가더지례된다고 허무맹랑한소리로임에서 나오는대로 변명에 노력을 하엿다고한다 이것을 보더래도 일반은 과거의여하를 알수가잇겟고 앞만아니라 여러가지로 진흥우편의 폐행이 폭로되는동시에 일반인사들은 이애대하야 크게분개하며모씨는 우편소사무원을대하야 주의케하여달라는 말을하매 이가티 무례한말을하지 말라고하며 이우편소까지 가거만왓스면 업서질수가 만무하다고 도리여 청을 내이며불친절하기가 못이업는동시에 일반인사들은 이가티 무책임하고 불친절함 하기이라고 흔만한진흥우편소는 잇스나업스나 일반이니 업서도조타는비난이자자하다 더라(진흥)

星州小作爭議는 舍音所爲

디주를팔어서 별별짓을다해

경북성주군 성주면 학산동 (星州郡星州面鶴山洞) 과 월항면(月恒面)일대에잇는 역둔토(驛屯土)의소작인들은과도한소작료와 매년이작을 당하야 크게곤난을당하며항상디주에게불만을 가지고 수차디주에게 질문도하고군당국에 진정서까지 데출하얏다더니 근일경찰당국에문데가되야묘사한결과모든비난는사음(舍音)의악수단으로인하야생긴것이라는데 자세한이약이를 듯건즉그토디는왜관(倭館)에잇는강야(岡野)라는사람의토디인데소작계약에긔한을삼년으로정하얏슴을 불구하고 사음인 리상한 (李相漢)은디주의 명령이라하며매년 이작을시키는바 이작보증금(移作保證金)이라는 명의로매두락에일원 혹은이원을 바드며권소작인이 계속하야 소작하랴할때에도 상당한운동비가 필요하다하야 역시매두락에 일원. 원을 바덧다는데 월항면의 권사음이든정의상(鄭義相)이라는자와가티그러한짓을한것이라더라(성주)

金化에放火窃盜

변소에불을노코 집에가서절도질

지난십구일 오후열두시경에 강원도김화군근북면두촌리 (江原道金化郡近北面斗村里) 팔십사번디김조형의변소에서 불이일어나서이웃사람들은진화에노력하는중이웃집 김두형(金斗衡)의집에서는 백미한자두십여두를 일허버렷다는데 그이웃집윤영훈(尹榮勳)의집에서도그날밤에 불이일어낫든바 즉시진화하고 도사하야본즉 불이라든미테서 석냥한가지를 발견하얏다더라(김화)

휘파람

▲개성(開城)의유지라는사람들이무슨 미친바람인지 관왕묘(關王廟)라는꼬둑서모릎집을 몃해컨에 만흔돈을들어펑창히수축하야노앗다▲그후로 오늘까지 그속에는별별해괴한행동이다만하 무던히도 개성시민의입살에 오르나려왓다▲그런데 근일에는더 한가지해괴한 사실이잇스니 그는 소위 점(占)을친다고 부녀자들이 매일수백명식 모혀드는것이다▲점을치느지 경을치느지는 모르거니와 그것을 기회로 일이지마는 회상에절을하며 수를결뎡한다고 서드는것은 한보기에 흉상하다